

치 사

**‘지장보살특별전 삶, 그 후’의 개막을
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**

**지장보살은 관음보살과 함께 불교의
여러 보살들 가운데서도 중생의 아픔과
고난을 함께하는 보살로 대표되며
오랫동안 신앙의 대상을 넘어 생활의
일부로 자리 잡았습니다.**

**관음보살이 현세 고난을 덜어주시기
위해 계시다면, 지장보살은 미혹한**

**중생들이 과보로부터 고통 받는 것을
구제하기위해 함께 해주는 보살입니다.
우리가 사찰의 명부전에서 지장보살과
명부의 왕들에게 예를 다하고, 재를
올리는 까닭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
일 것입니다.**

**이번 특별전은 지옥에서 고통 받는
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전까지 정각에
이르기를 마다하시면서 미혹한 중생을
구제하겠다는 큰 서원을 세우신 지장
보살의 뜻을 기리는데 그 의미가
있습니다.**

이와 더불어 사부대중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언제라도 잊지 않고, 어리석음에 죄를 짓지 않고 여러 생에 걸쳐 공덕을 쌓아, 마침내 생사윤회의 고통이 없는 경지에 오르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.

이런 뜻 깊은 전시를 기획하고 밤낮없이 애써주신 불교중앙박물관 관계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, 더불어 이번 전시가 성사될 수 있도록 귀중한 성보들을 믿고 맡겨주신 기관과 각 사찰, 그리고

**성보박물관 관계자분들에게 깊은 감사의
인사를 드립니다.**

**불기 2554년 11월 12일
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**